발포 폴리에틸렌“ 혼란"

무가교분야 소기업 난립 … 가격경쟁으로 경영난 심화

국내 발포PE시장이 소규모기업들의 난립으로 혼란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발포폴리에틸렌의 용도가 다양화되면서 소규모기업들이 난립, 최근 기초원료의 전반적인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제품가격은 10% 이내의 소폭 인상에 그치고 있어 기존 중견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같은 혼란은 비교적 생산이 용이한 무가교분야에서 심한 것으로 드러나 제품에 대한 엄격한 규격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발포폴리에틸렌은 폴리에틸렌을 발포시킨 보온재로 생산형태에 따라 가교제품과 무가교제품으로 나뉘는데, 가교제품은 무가교의 물성을 보완한 것으로 무가교제품의 최고 사용온도가 70℃인데 비해 가교제품은 120℃까지 사용이 가능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발포PE제품의 가격은 5mm×m×m기준 무가교제품이 250원 내외로 가격경쟁과 수요둔화가 맞물려 가격변동은 거의 없으며, 가교제품은 무가교에 비해 20%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발포PE시장은 연간 100억원 규모로 최근 2~3년간 3~5%의 미미한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용도가 유사한 유사단열재에 비해 가격이 비싼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발포PE의 주요 용도중의 하나인 자동차용 내장재가 발포PP로 대체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포 PE는 스티로폴에 비해 2.5배, 압출발포PS에 비해 1.5배 정도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국내 생산기업은 가교분야의 경우 영보화학을 비롯 통일, 6성원, 광주통일 등이 있으며 영보화학은 원단시트만을 생산, 국내 가공기업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무가교의 경우 두남, 한비산업 등 중견기업과 소규모기업들을 포함, 30개 이상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다.
발포PE는 열전도율 및 충격흡수성이 우수해 내장재로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내습·내수성이 뛰어나 습기에도 물성 변동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발포PE는 주로 자동차용 내장재와 가전제품 내장재·건축토목용 보온재로 전체수요의 40%정도 사용되고 있다.
그외에 가방·의료용보호대 등의 성형품용과 스포츠·레져용품·완충포장용·일용잡화용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보온재분야는 무가교제품이 스티로폴이나 압출발포PS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반면, 가교제품은 보일러용 고온파이퍼커버, 결로방지용커버 등 120℃의 고온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고품질의 가교제품 생산과 용도개발로 제품의 차별화를 적극 시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4/12/26>